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2학년 1반 14번

이름 : 정현우

소감문(사진첨부 가능)



나는 2018년 8월29일 수요일 체험학습을 갔다.

먼저간 곳은 절 불감사에 다녀왔다. 가서 스님들을 좀 많이 뵈었다. 그리고 나서 불감사가 약간 동아시아의 영향을 받은 건물이라고 배웠다. 백제시대 부터 있었다니 많이 신기했다 막상 해설사 선생님이 있어서 설명을 들으니 더 많이 배우고 왔다. 그리고 나서 내산서원을 지나고 불교백제최초도래지에 갔다 왔다. 지루하긴 했지만 그래도 뜻이 있었다. 마라난타 스님이 인도에서 법성으로 와서 불교를 전했다고 했다

그다음 미르목장을 갔다 먼저 치즈를 만들었다

컵밥도 맛있었고 치즈도 맛있었다. 그다음 소들에게 풀도 주고 우유도 줬다. 그다음 피자를 만들고 아이스크림도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체험이 끝이 났는데 좀 많이 힘들었다. 더운날에 야외활동 이라 그런지 피곤하기도 했지만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가고 싶다.